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8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 확대 등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 추진

- 복지부,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지역 자살예방대책 논의 -
- 지역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활동 및 현장컨설팅 등 강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6일(수) 오전 10시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들과 함께 지역 자살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역 민간 생명지킴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등 지역에 잠재된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시도 및 사군구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담 전화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생명지킴이 사업,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멘토링, 드론을 활용한 대교 자살 예방 강화,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 자살유족 힐링캠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사례에 대해 공

유하고 토론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도 지자체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2차 추경을 통해 55개 사군구에 추가 국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 14개 시도 79개 사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 민간(약국, 병원, 종교단체), 아통장, 부녀회, 상인회 구성원들이 생명지킴이가 되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지원, 인식개선, 가정방문 및 말벗서비스 제공, 자살 다빈도 장소 점검 등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의 자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자치단체에 대면 대책회의 및 컨설팅(이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월 1회 시행해 오던 것을 7월부터는 월 4회 실시하여 더 많은 지자체가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 컨설팅에는 지자체장을 비롯한 자살예방 관련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조직 구성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자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수행하게 된다. 최근 실시된 컨설팅에서는 해당 지역 단체장과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병원,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20여 곳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지역 특화전략 수립에 힘을 기울인 바 있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살예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267. 자살예방정책과. 2025. 8. 6.

II

AI 진단·예측, 신약개발, 의료기기 개발 분야 5년간 1천 명 이상 인재 양성 추진

-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착수보고회 및 협의체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8월 6일(수)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키우스 호텔(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 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6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2025년은 학교당 7.5억 원 지원)
 - * (6개 대학, 가나다순)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
-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여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학생 참여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000명 이상의 의료 AI 융합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 이번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 학점 교류 인정 방안 마련, 성과교류회 및 경진대회 공동 개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타 연구개발 사업 연구자의 강의 및 교육용 데이터셋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백영하 과장은 “의료 AI는 보건의료 분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라며, “AI와 의·약학의 전문성을 가진 융합형 인재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선정 대학 현황

수행기관 (가나다순)	핵심 특화분야	참여병원	참여 단과대학	참여 기업
경희대학교	멀티모달 분석 기반 AI 진단 예측	경희의료원, 권역의상센터 (8개 병원)	의대, 치대, 한의대, 전자정보대, 소프트웨어 융합대	카카오헬스케어, 코스맥스, 트라이얼 인포매틱스 등
서울대학교	AI 의로기기 개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의대, 공대, 첨단융합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네이버, 카카오헬스케어, AWS, 루닛 등
성균관대학교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로기기 개발 등	삼성서울병원	의대, 생명공학대, 소프트웨어 융합대, 정보통신대	SK바이오사이언스, 이엔셀, GC지놈, 지니너스 등
아주대학교	AI 신약·치료제 개발, 멀티모달 분석 기반 AI 진단 예측 등	아주대학교 의료원	의대, 약대, 첨단바이오융합대, 소프트웨어 융합대, 공대, 자연대	스탠다임, 파미노젠, 인실리코젠 등
중앙대학교	멀티모달 분석 기반 AI 진단 예측	중앙대학교 의료원, 중앙대광명병원	의대, 소프트웨어대	서지컬마인드, 큐렉소, 웨이센, 뷰노, 답노이드 등
한림대학교	멀티모달 분석 기반 AI 진단 예측	춘천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의대, 간호대, 인공지능융합학부	카카오헬스케어, 마크로젠, 뉴로핏,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269.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5. 8. 6.

III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 범정부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733명 단속, 마약류 2,676.8kg 압수 -
- 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 철저 당부 -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안을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

■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①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하였다.

- 상반기 특별단속은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단속 주제별 주요 실적 】

- **(해외밀반입)**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 검거,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 압수
- **(국내유통)**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 →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 검거
- **(의료용마약류)**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 점검 23개소 적발

■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 하반기 특별단속은 △ 현장 유통 차단 △ 유통경로 근절 △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하였다.
-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하였다.

②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 주요 완료 과제로는 △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 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있었으며,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했다.
-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

③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등 개선방향

-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하였다.
 -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284. 정신건강관리과. 2025. 8. 13.

IV

청소년·청년 주도 ‘노담소셜클럽’, 노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시작

- 20개 ‘노담소셜클럽’, 현장과 온라인으로 자발적 ‘노담’ 실천 문화 조성에 주력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현주)은 8월 23일(토) 앤더슨씨 성수(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2025년 흡연예방 캠페인 ‘노담소셜클럽’의 첫 번째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 ‘노담소셜클럽’은 15세~34세 청소년 및 청년 비흡연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담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택하는 새로운 ‘노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과 청년층의 세대 문화에 맞춰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캠페인 참여를 위한 클럽 모집은 6월 27일(금)부터 7월 27일(일)까지 약 한 달간 공식 누리집(<https://nodam.kr>)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167개 모임(클럽), 3,638명의 청소년·청년들이 지원해 큰 관심을 모았다. 클럽 활동 기간, SNS 영향력(팔로워 수), 연령 및 범주의 다양성 등 선발기준에 따라 20개 클럽*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선발된 클럽은 앞으로 ‘노담문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운동, 음악, 연극, 미식 등 다양한 분야의 16개 클럽과 청소년 참여를 위해 중고등학교 4개 클럽 선발
- 이날 발대식은 ▲ 선발된 노담소셜클럽 간 유대 형성 및 소통 ▲ 노담캠페인 활동 소개 ▲ 클럽장 노홍철과 함께하는 노담Q&A 토크와 임명장 수여 ▲ 노담 확산 의미를 담은 대형 풍선 띄우기 등 기념행사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 행사는 재미와 의미를 찾아 유쾌한 일상을 살아가는 노담연예인으로서 노담클럽장을 맡은 방송인 노홍철이 주도했다. 이번 발대식은 클럽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담문화’에 대한 공감대도 넓혔다.
- ‘노담소셜클럽’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17일(금)까지 현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온라인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 클럽의 특색을 살린 ‘노담’ 콘텐츠를 3회 이상 제작하여 게

시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홍보물(깃발, 티셔츠, 모자, 가방, 키링, 스티커, 확산기 등)을 활용해 서울 주요 지역과 행사장(롯데월드 9.6., 서울숲재즈페스티벌 9.20.)에서 ‘노담소셜클럽’과 ‘노담’ 메시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 활동기간 동안 클럽의 특징을 살린 ‘노담’ 콘텐츠 제작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상위 3개 클럽에 대해서는 대국민 인스타그램 투표가 실시되며, 참여의 적극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최우수클럽이 선정된다. 선정된 클럽은 11월 중 클럽장 노홍철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 촬영 등 특별한 활동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순현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선발된 ‘노담소셜클럽’의 자발적 활동을 계기로 청소년과 청년이 ‘담배 없는 모임’ 속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며, “특히 비흡연이 강요가 아닌 젊은 세대가 스스로 선택한 멋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최근 청소년과 청년을 겨냥한 담배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담’ 문화 확산은 이러한 유혹을 차단하고 미래세대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목소리와 자발적 참여를 중심에 두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흡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293. 건강증진과. 2025. 8. 24.